

담당부서 : 시법지원실(02-3480-1386)

담당자 : 최우진 시법지원심의관

공보관실 : ☎ 3480-1451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민사 사법제도 부문 평가, 3년 연속 세계 2위

- 신속한 소송진행과 저렴한 소송비용 부문에서 높은 평가, 전자소송 시행도 호평
- 아시아 1위, 인구 5,000만 명 이상 국가 중 1위, 독일, 프랑스, 홍콩, 미국보다 앞서
-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오른 7위, 사법제도의 효율성이 전체 국가순위 향상 견인

□ 세계은행 ‘계약분쟁 해결’ 사법제도 - 3년 연속 세계 2위

- 세계은행(World Bank)은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업환경보고서(Doing Business) 발표
- 2013. 10. 29. 공개된 "Doing Business 2014"의 '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'(Enforcing Contracts)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9개국 중 2위에 랭크 - "Doing Business 2012" 이래 3년 연속
- 2008년 이후 6년 연속 "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" 부문 TOP 10에 오름

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1	홍콩	홍콩	룩셈부르크	룩셈부르크	룩셈부르크	룩셈부르크	룩셈부르크
2	룩셈부르크	룩셈부르크	아이슬란드	홍콩	대한민국	대한민국	대한민국
3	라트비아	아이슬란드	홍콩	아이슬란드	아이슬란드	아이슬란드	아이슬란드
4	아이슬란드	라트비아	노르웨이	노르웨이	노르웨이	노르웨이	노르웨이
5	싱가폴	핀란드	대한민국	대한민국	홍콩	독일	독일
6	오스트리아	미국	프랑스	독일	프랑스	미국	오스트리아
7	핀란드	노르웨이	독일	프랑스	미국	오스트리아	프랑스
8	미국	대한민국	핀란드	미국	독일	프랑스	핀란드
9	노르웨이	독일	미국	오스트리아	오스트리아	핀란드	홍콩
10	대한민국	프랑스	뉴질랜드	뉴질랜드	뉴질랜드	홍콩	러시아

- 아시아 국가 중에서 2012년 이후 1위 - 홍콩이 다음 순위
-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2010년 이후 1위 - 독일, 프랑스, 러시아 등이 TOP 10에 포함

※ 2010년부터 4년 연속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총소득(GNI per capita) 76,960\$ (2012년 기준)로 세계 3위이며, 인구 약 50만 명의 소규모 도시국가로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

□ ‘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’의 순위 산정 방법

- 조사기간: 2012. 6. ~ 2013. 6.
- 평가자(contributor) :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
- 민간 ADR기관의 성과는 제외하고, 순수하게 사법부의 계약분쟁 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춤
- 조사 대상인 각국의 1심법원에 아래와 같은 유형의 계약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상정하여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소송절차의 복잡성(종국 판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), 소송기간, 비용 등 3가지 기준을 기록 및 절차서비스, 심리와 판결, 집행의 3단계에 걸쳐 평가
 - 상정된 사안

- ① 2개 국내기업 사이의 주문판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서, 판매대금은 1인당 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정
- ② 매도인이 물품을 배송하였지만, 매수인이 품질미달을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며 대금 지급 거절 ⇒ 매도인이 그 지역 1심지방법원에 소 제기
- ③ 매수인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어 본안소송으로 진행
- ④ 법원이 물품의 품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절차 진행

□ 3년 연속 세계 2위의 원인

-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9개 국 중 소송기간 6위(230일, 1위는 싱가포르 150일), 소송비용 5위(소송가액의 10.3%, 1위는 부탄 0.1%)로 높은 평가를 받음
- 또한, 2011년 5위에서 2012년 2위로 상승한 배경에는 2011. 5.부터 시행된 전자소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임
 - 세계은행은 사법제도 부문을 평가하면서 소송과정의 전산화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⇒ 2014년 기업환경보고서도, 비용 및 공간의 절감, 보안성 및 투명성과 사법접근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전자소송이 한국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소개하면서 모범사례로 들고 있음(2014년 기업환경보고서 66~70면)

□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

- 2012년 9위로 TOP 10 진입, 2013년 8위, 2014년 7위로 매년 1단계씩 상승 중
- 2014년 순위는 싱가포르, 홍콩, 뉴질랜드, 미국, 덴마크, 말레이시아, 우리나라 순이고, 2013년 6위였던 노르웨이가 9위, 7위였던 영국이 10위를 차지함

- 계약분쟁 사법제도 부문에서 2위(우리나라 개별 부문 중 최고 순위) 차지 ⇒ 해외무역 부문(3위) 및 전력공급 부문(2위)과 함께 전체 순위 견인
- 기타 부문에서는 재산등록 75위(2013년 75위), 투자자보호 52위(2013년 49위), 조세부과 25위(2013년 30위), 창업 34위(2013년 24위)로 상대적 부진

□ 세계은행 평가의 의미

- 우리나라 민사 사법제도가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음
-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존재하는 국가일수록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에 유리 ⇒ 외국기업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
- 우수한 사법제도가 국가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